

중국 현대 애정시 연구

朴 雲 錫**

<目 次>

I. 序	IV. 文化大革命과 愛情詩
II. 문학혁명기의 애정 시	V. 結
III. 애정시의 발전과 수난	

I. 序

노래와 시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애정이라는 인간의 감정 그 자체처럼 오래되었다. 아마도 문자가 있기 전에 이미 애정을 노래하고 읊조린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애정이라는 이 오래된 주제는 오히려 영원히 젊은 상태로 존재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역사가 바빠 흘러가면서 戀歌를 노래한 사람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들이 부른 사랑의 노래는 후세에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진지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시편들은 긴 세월동안 기적과 같이 청춘의 산뜻함과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까지 감동시킬 수 있었다. 중국 최초의 시집인 《詩經》을 펼쳐보면 그 첫 번째 편이 <關雎>인데, 여기에는 이미 수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청춘이 존재하고 있다.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중국의 現代詩史에서 애정 시는 중요한 한 부문이다. 現代詩는 「5·4」 문학운동의 한 부분으로 출현하자마자 反帝·反封建의 철저한 투쟁의 깃발을 들어 봉건제도를 공격하고 봉건 도덕을 비판하고, 연애 혼인의 자유를 쟁취하고, 광명으로 통하는 생활의 길을 탐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5·4」 당시, 과학·민주를 부르짖으며 봉건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개성해방 노력은 지식계의 보편적인 관심을 얻었다. 그 때 불렀던 애정의 노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확인을 수반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의 생활은 응당 존중되어야 하고, 사람의 생활 권리인 애정과 혼인 또한 당연히 이와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II. 문학혁명기의 애정 시

魯迅은 문학혁명의 선구자로서 당시 적막한 시단에 몇 수의 신시를 지어 현대시단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 가운데에 <愛之神>이 있다. 가장 먼저 백화문학을 창도했던 胡適도 일찍이 애정시를 창작하였다. 그가 1919년에 지었던 <應該>는 친구가 지은 두 수의 화려한 文辭로 쓰여진 舊體詩를 다시 고쳐 쓴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는 구시에는 없었던 자연스럽고 소박한 신체 애정시를 지었던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마땅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하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情으로 그를 대해야 한다.”¹⁾ 舊體 愛情詩를 다시 쓴 이 新體 愛情詩는 신시가 걸음마 단계에 있는 미숙함을 개괄하고 있다. 이 미숙한 걸음이 바로 시대를 구분지어 놓았던 것이다.

애정시가 결코 중국 신문학기에 처음 지어진 것은 아니다. 역대의 걸출한 시인은 거의 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愛情詩를 남겼다. 그러나 백화로 쓰고, 그 내용 또한 과학과 민주를 주장하며 연애와 혼인의 자유의식을

1) “你要是當眞愛我，你應該把愛我的心愛他，你應該把待我的情待他。”《嘗試集》（上海書店印行，1982）56쪽.

묘사한 애정시는 중국 신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어쩌면 호적의 사상적 제한으로 인해, 그의 애정시에 비록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애정에 대한 각성이 있을지라도 봉건 전통에 대한 용감한 도전은 부족하였다. <應該>와 같은 해에 쓴 郭沫若의 <Venus>는 다르다. 대담하고 솔직한 이 작품은 봉건 문학가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눈만 크게 뜨고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할 만큼 파격적이었다. 이러한 선명한 개방적인 경향은 전통의 詩歌 내지 전통의 애정시에 대해서 모두 반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구문학의 문인들이 지은 愛情詩 대부분은 온화하고 짐작으며 진아함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중히 여겼지만, 신문학에서 출현한 애정시는 저지할 수 없는 기세로 속박의 갑문을 뚫고 나아갔다. 신문학기의 애정시는 과감하게 자유연애를 神聖한 것으로 썼으며, 남녀의 전통적 규율을 철저히 벗어났으며, 戀情을 표현하는 사실적 묘사를 회피하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당신을 바라보고, 나는 가까이서 당신을 살피고, 나는 당신을 꼭 껴안네……”²⁾ 봉건 예교에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를 말라[非禮勿視]”라고 하지만 이 詩는 이 「禮」를 무시하고 일부러 그 道에 반항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俞平伯의 <占有>라고 하는 이 애정시가 대담하게 위와 같은 시구를 썼을 뿐만 아니라 선언식으로 외치기를: “우리들은 사랑해야 하고, 우리들은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我們要愛, 我們要熱熱的愛.]”라고 하였다. 그는 짧은 이 시에서 두 차례 도전적으로 반문하기를: “누가 감히 이것이 일종의 죄악이라고 말하는가?[誰敢說這是一種罪過?]”라고 하였다.

「5·4」 당시 출현한 애정시 대부분은 이러한 도전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 郭沫若의 《瓶》은 모두 42首로, 폭발할 것 같은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열하고 투명한 결정체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봉건 예교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비판정신이 있다. “나는 난을 사랑하고 또한 장미를 사랑한다. 나는 시를 사랑하고 또한 그림을 사랑한다. 나는 지금 또 메화를 사랑

2) “我遠遠的望着你, 我近近的覷着你, 我緊緊的握着你……” 俞平伯 <占有>《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 1981) 36 쪽

하는데, 마음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瓶·獻詩》)³⁾ 봉건제도의 질곡에서 사랑의 해방은 개성 해방의 일부분이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 천년간의 봉건 암흑을 직면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심령에서 솟아나온 걱정의 꽃이 얼마나 사람을 미혹시키는가!

俞平伯이 “누가 감히 이것이 일종의 죄악이라고 말하는가?”라고 말하였는데, 사랑하는 행위와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옛날에는 죄악으로 여겨졌다. 단지 과학과 민주를 쟁취하고자 하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사랑과 애정을 노래하는 것이 비로소 합당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두려움이 없는 선구자가 투쟁을 하고 있을지라도 일반 사람들의 애정에 대한 추구와 애정을 노래하는 것은 역시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생을 하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죄악이 아니다[不是罪過]”·“두려워할 필요가 없다.[無須懼怕]”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고무시키는 표현을 하였다. 黃琬이 지은 <自覺的女子>는 분명히 「깨달은 여자」의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의 소리이다. “나는 그를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질박하고 수식이 없는 언어로 사랑이 없는 중매혼인에 대한 각성과 항의를 표현하고 있다.

湖畔⁴⁾詩派 네 사람의 시인 중 汪靜之의 《蕙的風》은 영향력이 가장 큰 시집이다. 그 중<過伊家門外>는 일찍이 한차례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사람들의 지탄을 무릅쓰고,
한걸음 가다 뒤돌아 내 마음의 여인을 걸눈질로 힐끗 보았네;
어찌나 기쁘면서도 오싹하던지.⁵⁾

- 3) “我愛蘭也愛薔薇，我愛詩也愛圖畫，我如今又愛了梅花，我于心有何懼怕?” 《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1981) 21 쪽
- 4) 청년시인인 潘漠華·馮雪峰·應雲人·汪靜之 등이 《湖畔》을 1922년에 출판하고, 이어 《春的歌集》을 출판하였다
- 5) 我冒犯了人們的指摘，一步一回頭地瞟我意中人；我怎樣欣慰而膽寒呵。《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1981) 54 쪽

그 당시 만약 대담하게 “한걸음 가다 뒤돌아 내 마음의 여인을 힐끗 보았다면” 사회의 여론을 무릅써야 했다. 그의 「오싹하다(膽寒)」는 말은 봉건 도덕의식이 아주 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기뻐하다(欣慰)」는 그가 대담하게 사랑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왕정지의 간담이 서늘함에는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그가 빨리 기뻐한 것이다. 그의 시는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결눈질로 힐끗 보는 행위가 ‘음탕하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魯迅은 이런 비평가의 면전에 용감하게 나아가 이 시를 쓴 청년을 옹호하였다. 그는 “《蕙的風》에 ‘한걸음 가다 뒤돌아 내 마음의 여인을 결눈질로 힐끗 보았네[一步一回頭地瞟我意中人]’란 구가 있어서 《金瓶梅》와 똑같은 죄를 받았다. 이것은 두루 단련되는 것이다. …… 나는 중국의 소위 도덕가의 神經은 自古以來로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더욱 예민해져 있다. ……”⁶⁾ 다행히 노신과 같은 이러한 진보적인 여론이 있지 않았더라면 비평가들의 비난은 충분히 세상경험이 깊지 않은 청년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愛情이란 어두운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그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일종의 기이한 물건이다. 우리가 오늘날 한 편 한 편 펼쳐서 읽는 아름다운 애정시는 실로 그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눈물자국이나 혈흔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애정시란 여전히 시대의 발자국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설령 그 발자국소리가 연약하고 가느다란 것일지라도, 애정시는 자신이 처한 시대를 벗어난 적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그 한 시대의 진보적 활동을 쟁취할 수 있는 힘 있는 날개를 달게 되었다.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노래한 초기 시편들은 암흑사회에 항쟁하거나 피압박자를 동정하는 민주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시편들과 함께 출현하였다. 그것들은 사상해방이라는 진보적 진영에 함께 속했다. 이 때 나타난 애정시들은 현실주의적인 태도로 명백히 서술하는 것에 치중하였고, 실생

6) <反對“含淚”的批評家>《魯迅全集》1권(人民文學出版社, 1981) 403쪽.

활의 정경을 묘사하고 상상을 중요시 하지는 않았다. 백화를 써서 압운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기도 하여 격식에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질박하고 꾸밈이 매우 적었다. 초기의 신시 개척자들 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 외에도 劉半農·劉大白·康白情·徐玉諾 등과 또 湖畔派 시인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애정시를 후세에 남기고 있다. 그들의 창작은 대체로 모두 애정시가 반드시 빠트리지 말아야 할 요소, 즉 성실하고 진솔했다. 그때의 자유체 애정시는 대부분 당시 성행한 短詩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2-3구 또는 3-5구(좀 더 긴 것도 있었지만)로 한 편을 이루었다. 이러한 편폭이 짧은 시들이 질박한 자연과 일상의 구어에 진력하여 접근한 것은 스스로의 장점이지만, 적지 않은 작품들이 내용 면에서는 평담한 쪽으로만 쏠리고 함축성이 적으며 형식면에서는 산만한 쪽으로 쏠리고 근엄하지 않은 점도 있었다. 당시의 시가 說理쪽으로 치중했다고 평한 朱自淸의 말을 빌려보면, “지나칠 정도로 투명하고 밝은 면에는 투철했으나, 여운과 뒷맛은 부족하다”⁷⁾고 했는데, 초기 애정시의 결점을 지적한 것으로는 타당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결함은 격률미를 주장한 新月派가 흥기한 뒤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보완되기 시작했다. 신월파의 주요 시인들은 거의 모두가 애정시를 썼다. 聞一多에게는 유명한 《紅豆》가 있고, 徐志摩·朱湘 등은 애정의 노래를 ‘섬세한 아름다움’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버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모두 시를 짙은 아름다움으로 화려하게 쓰려고 추구하였다. 그들은 상상을 중시하였고, 실질적인 존재가 아닌 미래의 존재를 표현하는 데만 치중하였는데, 바로 朱自淸의 “스스로가 정해놓은 에인만을 만들 뿐이다”라는 말과 같다. 종전에는 현실을 뛰어넘은 내용을 써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러한 글은 없었고, 비록 현실을 떠나지 않고 실생활의 정경을 묘사하였지만, 오히려 더욱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질게 띠고 있다. 신월파 시작의 결점은 운율과 기교를 중시하고, 과장을 지나치게

7) 《新文學大系·詩集·導言》(上海文藝出版社, 1981) 2쪽.

함으로써 애정시가 가져야 할 자연스럽고 실질적인 정취를 잃어버리게 하였다. 서지마는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沙揚娜拉一首》와 같은 것은 순수하고 소박함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무엇보다 제일가는 건 나지막이 머리 숙이던 그 따뜻한 부드러움이었지
 찬바람을 이기지 못해 고개 못 드는 한 떨기 수련 꽃같은 수줍음
 몸조심 하세요 하던 한 마디, 몸조심 하세요 하던 한 마디
 그 한 마디 말속에 남아 있는 달콤한 우수——
 사요나라!⁸⁾

Ⅲ. 애정시의 발전과 수난

애정시가 新月派 시인이 활동하는 지점에 도달한 뒤, 봉건에 반항하던 당초의 그런 강렬한 이미지는 이미 약화되었지만, 예술은 오히려 정교한 아름다움을 띤 원숙함으로 점차 접근하고 있었다. 이는 '5·4'에서 시작된 현대 애정시가 자체의 발전과정 중에서 단순포장 식으로 정감을 묘사하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섬세하고 매끄러움·그윽하고 완약함·굽거나 부러짐과 번잡하고 복잡함을 요구하는 쪽으로 쏠리는 것은, 아직도 「眞摯」라는 두 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애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30년대의 시집으로서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것은 何其芳의 《預言》이다. 《預言》은 우리에게 담담한 애수가 흐르는 시편들을 남겨주었는데, 그것은 청춘의 연정을 입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기방의 애정에 관한 표현 방식은 매우 독특했는데 다음 시를 감상해보자.

8) 最是那一低頭的溫柔，象一朵水蓮花不勝涼風的嬌羞，道一聲珍重，道一聲珍重，那一聲珍重里有蜜語的憂愁——沙揚娜拉！《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1981）108쪽.

금빛 별뿔이 숲 사이에 떨어지는 소리를 그대는 들었나요?
 누렇게 익은 왜나무 꽃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소리일 뿐이지요.
 한 조각 녹음이 그대 목덜미 누르는 걸 느꼈나요?
 뻑뻑한 나뭇잎 사이로 미끄러져 내리는 미풍일 뿐이지요.
 영롱하던 난간의 그림자도 벌써 우리들 발쪽으로 옮겨왔어요.
 침묵하고 있는 그대 빨간 입술은 어떤 답을 기다리고 있나요?
 소리 없이 떨어지는 꽃 같은 입맞춤이 아닌가요?⁹⁾

백화체 신시의 발전은 이때 이르러 이미 거의 20년이 되었다. 20년간 여러 유파의 절충과 경쟁을 거치며 애정시도 장족의 진보가 있었다—즉, 예술성이 이미 성숙기에 도달했다. 何其芳뿐만 아니라 戴望舒는 걸출한 시인도 있으며, 그 외에도 예를 들면, 金克木·陳夢家·沈從文·卞之琳 등은 모두가 각자의 노력으로 애정 시 창작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그러나 항일전쟁의 포화는 연인들의 경쾌한 노래를 덮어버리고 쫓아버리기 시작했다. 전쟁을 알리는 햇불이 천지를 뒤덮는 가운데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깊은 재난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애정시가 쇠퇴하는 첫 번째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 출현한 중요 시인들은 모두가 하나 같이 매우 엄숙했다. 艾青·田間·臧克家是 각자 독립된 시파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거의 모두가 애정시를 발표하지 않았다. 애정의 《火把》는 애정을 주제로 시를 썼지만 전기의 애정 시와는 현저히 다른 풍격을 보여 주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개인 애정의 슬픔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와 탄식은 격양된 전쟁의 소리로 바뀌어버렸다.

대개 시대가 지나치게 냉혹하면, 우리들은 전란 중에 설령 애정의 비극이 있어도 그 비참한 흔적조차 보기 어려우며, 더욱 남녀가 화합한 애정의 곡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애정을 주제로 한 시 창작은 중단될 수

9) 你聽見金色的星隕在林間嗎? 是黃熟的槐花離開了枝頭
 你感到一片綠蔭上你的髮際嗎? 是從密葉間滑下的微風.
 玲瓏的欄杆的影子已移到我們腳邊了.
 你沈默的朱脣期待的是什麼回答? 是無聲的落花一樣的吻?
 《現代中國詩選》(香港大學出版社, 1974) 621 쪽.

없는 것이다. 설령 전쟁 중이라도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애정 시는 존재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위협과 재난을 경험하고 만든 비극은 오랜 시간 그리워하는 고통 속에서 의외로 다시 만나는 기쁨을 얻은 것 같으니, 모두 상처 깊은 시대의 흔적을 새기고 있다. 이와 같은 시편은 마땅히 개인의 슬픔과 기쁨을 동정하여 노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치 우리들이 杜甫의 <月夜>, <春望>을 읽고, 사생활의 한 측면에서 이 위대한 시인의 넓은 회포와 그 시대의 고난과 슬픔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실은 도리어 본 세기 30년대 후기부터 줄곧 40년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중일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애정시의 창작은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확실히 戰禍가 그치지 않는 시기에는 시인들이 많은 다른 명제의 창작을 해야만 했다. 애정 시는 아주 미미한 명제가 되어 버린다. 국가의 존망·민중의 피 눈물은 일찍이 남녀의 사랑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대립물이 아니다. 한 위대한 시인은 그가 애정시를 썼기 때문에 위대하지 않게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마도 반대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송고한 패기와 뜨거운 정감을 함께 갖춘 시인이 국가와 인민의 사업과 운명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女神》을 썼던 광말약은 《瓶》도 썼으며, 《死水》를 썼던 문일다도 《紅豆》를 썼으니, 그들은 모두 사생활에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확고한 혁명가가 되었다. 「湖畔」의 네 시인은 애정시를 많이 써서 유명하여졌지만, 그러나 <妹妹你是水>를 노래했던 應修人과 <問美麗的姑娘>을 쓴 潘漠華는 연이어 인민을 위해 선혈을 받친 혁명가였다.

광말약이 《瓶》을 처음으로 발표했을 때, 육달부는 <후기附記>를 썼다. 그는 시인이 사회 인생을 구가하는 것과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관계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했다.:

나는 시인의 사회화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드시 시 속에 권총이나 폭탄이 있고, 연이어 몇 백 개의 「혁명」「혁명」이라는 글자를 써야만

진정한 혁명시라고 부르는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속이지 않고 토로해 내고, 당신의 화산과 같은 열정을 분출해 내어, 당신의 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슬피 울고 기쁘게 웃을 수 있어야 비로소 시인이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다한 것이다. 혁명 사업의 발흥도 조금의 열정이 있는 것을 중히 여긴다. 이런 열정의 배양은 부드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여성적인 사랑에 의지하고자 한다. …… 남 유럽의 단눈치오가 순수 서정시를 쓸 때는 상아탑 안의 꿈꾸는 사람이었다. 용감하게 세상에 나서서 비행선의 전사가 될 수도 있었다. 중고시대의 단테라는 사람은 추방되어 외국에 있으면서 거리낌 없이 고국의 진제정치에 대해 열렬한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서정시를 쓸 때, 바로 마땅히 이상 중의 베아트리체를 바라보며 멀리서 숭배해야만 했다.¹⁰⁾

중국 詩史에 나타난 사실들은 옥달부가 말한 것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蘇軾은 <赤壁懷古>를 썼다. 그의 글재주는 양자강이 동쪽으로 흐르고, 하늘을 찌를 듯한 석벽, 기슭을 찢는 듯한 파도, 거친 풍랑이 하늘을 가리니, 얼마나 호방하고 슬프냐! 그러나 그가 아내의 목숨을 잃은 것을 생각할 때, 도리어 “십 년 동안의 산 사람 죽은 사람이 모두 아득하다.”라며, 애절하고 간절하여 사람을 감동시키고, 슬픔에 잠기는 <江城子>를 써내었다.

陸游는 또한 천하의 흥망에 대해, 그리고 개인의 연정에 대해 모두 감정이 풍부한 시인이다. “고적한 마을에 꿈쩍 않고 누워 있어도 스스로 슬프지 않고, 여전히 생각 한다 나라 위해 변방 윤대(輪臺)를 지키는 것을 깊은 밤 누워서 비바람 몰아치는 소리를 듣노라니, 철마 타고 얼어붙은 하천을 치달리는 일이 꿈속으로 들어오네.”¹¹⁾라는 시를 썼으니, 이 같은 시를 쓴 위대한 애국자가 동시에 부드러운 마음이 널리 전해지는 <釵頭鳳>을 쓴 다정한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한 시인에 대해, 전쟁에 관한 일의 격양되고 슬픈 노래와 꽃을 앞에 두

10) 《郁達夫文集·5卷:文論》(花城出版社, 1982) 237 쪽.

11) 僵臥孤村不自哀, 尚思爲國戍輪臺. 夜闌臥聽風吹雨, 鐵馬冰河入夢來. <十一月四日風雨大作>

고 달 아래에서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당연히 모순된 것이 아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결코 “영웅이 의기소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러한 천하 흥망의 앞에서 단지 개인의 작은 슬픔과 기쁨에 빠지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람된 인생을 창조하기 위하여 뜻을 세우고 투쟁하는 사람은 사생활 중에서도 풍부한 감정을 함께 갖춘 사람이다.

일찍이 어느 시대에는 애정시가 명백하게 냉담으로 말미암아 자취를 감추는 데에 직면했었다. 이런 상황은 혁명이 고조되었거나 혹은 성공을 획득했을 때에 더더욱 명백해진다. 그 원인을 연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반적인 생각은 혁명을 애정과 대립시키고, 연애와 혼인 같은 사소한 일이 반드시 위대한 혁명 사업에 위험을 가져오는 것 같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로 문예는 정치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이런 공식적인 간섭은, 정치가 애정 시로 하여금 더욱 풍부한 혁명의 기백을 가지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동기는 좋아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애정과 같은 영원한 명제를 잊지 않고, 그들은 정치의 틈새 속에서 애정을 위하여 모색하니, 이런 노력도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이다.

사실 애정 시는 항상 생존하려고 하며, 애정과 혁명의 관계를 결부하여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 방면에 있어서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聞捷이다. 중국 당대 시기는 문첩의 공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는 건국 후 17년간 전적으로 애정시만 쓴 드문 시인이다. 《天山牧歌》라는 시집은 대량의 우수한 애정시를 모았다. 소수 민족 지구의 특유한 풍경과 정취에 공동 노동 생활 속에서 생성된 진솔한 마음으로 정성을 더하였으니, 문첩은 확실히 애정시를 위해 참신한 영역을 개척했다. 투르판 분지에서, 보스 등 호반에서, 천산의 기슭에서 그는 우리들에게 중국 인민이 해방하여 갖게 된 애정 생활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아까운 것은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감동적 노래를 불렀을 뿐이다.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감정을 표

현하는 식의 애정시가 사라져 버리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서술하는 식의 애정시가 더욱 많아진 것이다. 애정시의 주관적 색채가 점차적으로 객관적인 색채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것은 시인의 개인적 경향이 아니라 거의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중공정부 수립 후에 시인들은 모두 자기의 애정을 공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듯 했다. 그것이 오래되니 그들은 모두 자기가 사랑에 대해 간절히 생각하고, 추구하고, 추억하는 것을 속으로 간직하는데 익숙해졌다. 5·4운동 이후 비교적 개방된 시기가 지나고 개인의 애정생활이 시 속에서 폐쇄된 상태로 나타났다. 그 중에 대부분이 시인의 가상적 애정이고, 진정한 애정시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시는 당연히 사람에게 거리를 느끼게 한다. 毛澤東이 1942년 <延安文藝講話>를 발표한 이후 문학이 정치를 위해 봉사할 것을 제창했기 때문에 시인들은 대부분 그런 의미 없는 애정시를 쓰려하지 않았다. 그때의 사람들은 정치와 시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하게 근본적으로 말하면 애정시도 시와 같아서 정치를 떠날 수 없고, 결국 정치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정치가 아니며 애정시는 특히 그러하다.

사람들이 애정과 정치와 노동과 선진 인물의 명예를 긴밀히 연계시키는 것은 일종의 필연이다. 이러한 애정은 확실히 중국 신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산물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폭탄과 권총이 없는 문학이라고 해서 혁명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휘장을 쓰지 않는 애정 또한 반드시 큰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유행하는 애정시 중에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열애중인 사람이 노동의 업적과 명예에 애정을 기울이고 사람의 존재에 대해선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다행히 이것 또한 모두가 그러하지는 않았다. 어떤 시인은 비교적 초탈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公劉의 <小夜曲>은 곧 어떤 흔히 보이는 개념의 꼬리표를 버리고 순진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한창 젊었을 때, 청춘은 술처럼 순수하다.
 누가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하지 않겠는가?
 누가 그 푸른 나뭇가지 위에서 잠들어 있는 듯한 작은 꽃과,
 그 녹음을 좋아하지 않겠는가?¹²⁾

邵燕祥은 자신의 시에서 “시인이 사랑을 추구할 때 「남에게 말 못할 괴로움」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는 여전히 진심으로써 사람을 감동시킨다.

살짝 웃는 속눈썹, 손을 잡은 후 남은 온기
 서로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영원히 힘들게 하는 애절한 사랑
 태양계에서 나는 유쾌하고 자랑스레 운행한다.
 그러나 누가 이 말할 수 없는 마음 속 고통을 이해할까
 (《지구가 화성을 향해 말하다》)¹³⁾

蔡其矯는 맑고 아름답고 완곡한 자유시만을 써왔다. 그의 시에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것이 가장 많고 또 가장 섬세하다. 그는 또한 사람의 감정에 대해 형상화된 미묘한 표현을 갖추고 있다. 그가 쓴 애정시는 언정을 매우 은근하게 표현하였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몇 점 흔들림 없는 빛이 눈뜨고 있다.
 어렴풋한 강위의 어화
 깊은 골짜기 고독한 초가집의 등불
 풀 위에 멈춘 개똥벌레

- 12) 當我們風華正茂，青春象酒一樣醇，誰沒有一些刻骨的相思？誰不喜歡那青條上半睡的小花？那一片綠陰？
 《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1981) 205 卒
- 13) ……閃笑的睫毛，握手的余溫，交臂錯過的一瞬，永遠難了的衷情……
 在太陽系里，我愉快而矜持地運行；但是誰懂得這一種難言的隱痛！
 <地球對着火星說>《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1981) 197 卒

한 순간도 깜빡이지 않는 숲 속 짐승의 눈
 한밤중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고난 속에서 타는 마음

<밤> 14)

문화대혁명 이전 17년간, 모든 문학은 새로운 역사 시기 속에서 새로운 발전이 있었으나 애정 시는 예외였다. 앞서 말한 원인 및 다른 여러 원인으로 애정시의 창작은 사람들의 시기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랜 전쟁기간에 비하면 그것은 비록 크나큰 공백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침체, 그것도 지나긴 침체에 속한다.

IV. 文化大革命과 愛情詩

그러나 사람들을 유감스럽게 한 것은 이러한 긴 침체기 후에 찾아온 것이 흥성기가 아닌 애정시의 철저한 암흑기라는 점이다. 문화대혁명의 10년은 현재 살아있는 중국의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경험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현대시가 완전한 공백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1976년 淸明節 무렵 천안문광장에서 일어난 새로운 시문학은 위대한 변화를 탄생시켰다. 그해 가을 중국에 드리워졌던 사인방의 어두운 구름을 몰아낸 것은 문학계에서 감사해야 할 일이다. 재앙을 두루 겪고 궁지에 몰린 시가는 짧은 회복을 거쳐 이른 봄의 아름다운 계절에 마침내 조심스레 중국 독자를 위해 이미 생소해져 버린 애정시를 시험 삼아 노래했다. 당연히 지적해야 할 것은 그것이 새로운 시기의 사상해방운동으로 감화를 받아서 생겨난 것으로 당시 소위 말하는 「傷痕文學」의 깨우침을 받

14) 在一片幽暗中睜着幾點不動的光亮，猶如漁火在朦朧的江上，油燈在深谷孤獨的小屋停落在草上的流螢，一瞬不眨的林中野獸的眼睛，在沈思默想的子夜，荊棘中燃燒的心<夜>《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1981) 230 쪽.

은 것이란 점이다.

청년시절에 정치적 혼란으로 역경을 경험하여 청춘을 잃어버렸던 일부 중년 시인들은 봄날이 다시 왔을 때 봄날의 사랑을 다시 얻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여미는 듯한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 그 하나하나의 연가 중에는 역사의 착오로 인해 빚어진 눈물들이 고스란히 배여 있었다.

〈草木篇〉을 썼던 流沙河의 애정 경력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그의 〈여자친구 결(潔)에게〉라는 시는 진실한 마음의 노래였다. 이러한 시들은 잊을 수 없는 1966년에 쓴 것으로 작품후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때 우리들은 너무나 유치했다. 나라와 가정에 재난이 들이닥치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감히 연애를 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들은 창 밖에서 민병들이 총을 들고 감시하는 가운데 결혼하였다. 이에 따른 것은 고생과 투쟁뿐이었으니 한마디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지금은 정말로 좋아졌다. 우리의 아들은 이미 13살이 되었고 광명을 맞은 중국의 봄날에는 곳곳마다 즐거운 사랑이 있다.”¹⁵⁾ 유사하가 묘사한 것은 환난 가운데서 맺어진 확고한 사랑이었고 이는 이미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가볍게 즐기는데 그친 그런 종류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아니었다.

어두운 세상더러 우리를 잊게 하라.
세월더러 문밖에서 조용히 흐르게 하라.
즐거움과 피로움을 우리들은 함께 나누리.
표정으로 상대의 고뇌를 알아내고
검은 머리에 서리가 내리도록
사랑을 연애시절처럼 계속하리.¹⁶⁾

15) 《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 1981) 276 쪽

16) 讓塵世紛爭遺忘我們 讓歲月在門外悄悄地走過
我們將平分歡樂與憂愁 在眉間看出對方的心事
直到黑髮凝結了秋霜 相愛還如初戀的時候
《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 1981) 274 쪽

유사하의 시에는 즐거운 사랑이 있는 봄날이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다. 중국의 시인들은 이 봄날을 일생동안 백발이 될 때까지 기다렸었다. 청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늦게 봄날을 맞은 시인들이 지은 시를 읽으면 그들은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그들에게 여전히 즐거움을 가져다주었다. 이렇게 늦게 찾아온 봄날에는 눈물의 즐거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曾卓(1922~)은 스스로 자기자신을 감정의 사막에서 온 손님이라고 일컫었다. <有贈>에서 그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곤궁했다. 갑자기 그의 앞에 사랑의 빛이 나타나자 그는 여자친구에게 말했다.

한 응금의 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한 모금의 술은 나를 취하게 만들고
조금의 파스함이 나의 온몸을 뜨겁게 하면,
나에게 너의 이러한 호의와 온정을 감당할 힘이 있을까?

나는 온몸으로 전을한다. 너의 손이 나의 손을 가볍게 잡고 있을 때,
나도 흐느껴 울지 않을 수 없다. 너의 눈물이 나의 팔뚝에 떨어질 때,
너는 이렇게 나의 손을 잡고 인생의 저 끝까지 갈 수 있겠니?
너는 이렇게 나의 손을 잡고 떨시하는 사람들을 헤쳐 나갈 수 있겠니?¹⁷⁾

이것은 정말로 고난의 사랑이었다. 이러한 눈물겨운 사랑의 노래로부터 지나간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상처와 갑자기 찾아온 광명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놀라움과 희열을 누가 감히 못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袁成蘭의 <深求>란 시도 오랜 헤어짐 끝에 갑자기 찾아온 사랑이 사

17) 一捧水就可以解救我的口渴, 一口酒就使我醉了,
一点温暖就使我全身灼热, 那么, 我能有力量承担你如此的好意和温情么?
我全身战栗, 当你的手轻轻地握着我的, 我忍不住啜泣, 当你的眼泪滴在我的手臂.
你愿这样握着我的手走向人生的长途么? 你敢这样握着我的手穿过蔑视的人群么?
<有贈>《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 1981) 272쪽.

람들에게 가져다준 혼란이었다. “당신은 너무 너무 나쁩니다. 나의 좋은 사람이여, 나에게 이별의 괴로움을 더해주고, 또 나의 고요함을 앗아갔네. 왜 내가 찾다가 지친 오늘의 황혼에 와서야 열렬히 걸어오는가? 검은 머리는 적어졌고 눈물만 많아졌네!”¹⁸⁾

그러나 사랑은 더욱 청년들의 것이었다.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축복해 줄 이유가 있다. 그들은 비록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이 봄빛이 무르익은 들판으로 나왔다.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놓여있어도 암흑은 이미 사라졌다. 그들은 그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없이 당당하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청년들의 애정시는 발전하고 있다. 꼭 마치 그들의 시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힘이 있다. 그들의 손에서 미증유의 시의 시대가 창조될 수 있다. 애정시를 포함한 중국시가의 변형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수많은 청년 작가 중에서 나는 舒婷(1952~)의 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의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작품은 《詩刊》에 발표된 <致橡樹(참나무에게)>라고 하는 애정 시이다. 애정과 혼인이 크게 오염된 오늘날 중국에서 舒婷의 이 시는 애정의 종속관계를 부정하였으며 참나무 앞에서 애정을 정중히 선포하였다.

나는 반드시 너 가까이에 있는 한 그루의 목화나무가 되어,
나무의 형상으로써 너와 함께 서 있으리. ¹⁹⁾

이 시의 주인공은 자립의식이 매우 강한 여성이다. 그는 금전과 권세에 가려진 사랑을 버렸고 남성에게 의지하는 것도 포기하였다. 이것은 한 각성한 여성이 독립된 애정과 생활에 대한 갈구이다. 시의 정서가 부드럽고

18) 你太壞了，我的好人，添我離愁又奪我寧寂，爲什麼在我已疲于尋找的今日黃昏，你熱烈走來，少了黑髮，多了淚滴！<深求>《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1981) 315쪽.

19) 我必須是你近旁的一株木棉，作爲樹的形象和你站在一起
《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1981) 286쪽.

조화가 되는 반면에 칼끝과 같은 예리함도 숨겨져 있다. 그의 예봉은 사랑이 없는 애정과 혼인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또한 그녀의 애정 시에서 그녀가 머무른 시대의 발걸음 소리가 의식한 고난과 장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추구와 신념이 있었고 방금 없어진 어둠 속에서 그의 머리 위에는 광명이 반짝이고 있었다. <自畫像>이라는 한 수의 시가 있었는데 그 속에 “그녀는 그에게 작은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다.”, “그녀는 평형을 파괴하고, 개념을 경시하고, 그녀는 마치 제멋대로 돌아나는 꼬마요정처럼, 이상한 춤 자세로 그를 에돌고 있다.”²⁰⁾ 이 역시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애정시의 영혼을 담은 시편들로 진실하고도 특별한 연애를 하고 있는 한 소녀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상태를 표현하였다. 표면적인 걸치레를 배제한 것으로도 우리들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국 현대 애정 시는 이 시대 중국 청년들의 수중에서 그 개성과 진실을 회복하고 있다. 젊은 작가들은 시의 촉각을 현실발전의 맥박에 들여놓은 동시에 사람과 사회의 풍부한 내심세계에도 침입하였다. 내심세계로 침입하는 것은 애정시의 창작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애정노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V. 結

중국 현대문학 발전에서 시기는 80년대에 들어와 중대한 전환의 시대에 진입하였다. 애정 시와 문학의 전반적인 상황은 같다. 침체기이후의 긴 회복기를 지나고 큰 희망이 있는 발전을 꿈꾸고 있다. 이 발전 속에서 애정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제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애정 시의 건강한 발전은 사람들의 심신건강에 유익한 도움을 갖다 줄 것이다.

20) 他是他的小陰謀家。

她破壞平衡，她輕視概念，她象任性的小林妖，以怪誕的舞步繞着他
《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1981) 289 卒

「5·4운동」이래 애정 시 가운데도 일부 소극적이고 퇴폐적이며 색정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중공정부 수립 후 시대의 흐름에 의해 제거되었고, 많은 시집에도 자연적으로 실리지 않게 되었다. 중국 현대 애정 시는 수많은 고난과 질곡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 參考文獻 >

- 《中國現代愛情詩選》(長江文藝出版社, 1981)
- 《郁達夫文集·5卷:文論》(花城出版社, 1982)
- 《現代中國詩選》(香港大學出版社, 1974)
- 《嘗試集》(上海書店印行, 1982)
- 《魯迅全集. 1권》(人民文學出版社, 1981)
- 《新文學大系·詩集·導言》(上海文藝出版社, 1981)

< 中文提要 >

中國詩歌進入八十年代, 是進入了一個重大的轉折的時代. 愛情詩和文學的整個形勢是一揚的. 它將完成長久的停滯之後的恢復期 而且孕育着大有希望的發展. 這論文是把「5·4」以來中國愛情詩考察的.

주제어: 中國現代詩, 愛情詩, 新月派, 文化大革命